

백정자 증장 기능보유자 식품명인 됐다



증장 제조 기능을 보유한 백정자(여·77·사진) 강진전통민장영농조합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5호로 지정받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백정자 명인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명인을 신규로 지정해 전국 전통식품명인은 모두 62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전남은 13명(21%)으로 가장 많은 명인을 배출해 전통의 본고장임을 증명했다.

백 명인은 강진군 군동면 해주최씨 현감공파 33대 종가집 며느리로, 집안 대대로 내려온 증장 제조 비법을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아 원형 그대로 보존한 정통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증장은 골게 뺨은 매춧가루, 보릿가루, 고춧가루와 함께 찹쌀죽에 섞은 뒤 소금에 절인 채소와 간장을 넣고 따뜻한 곳에 3일 정도 발효한 장이다.

그녀는 장을 상품화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로 지난 1985년부터 매주를 팔기 시작했다. 이어 2005년 강진전통민장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30년간 업종에 종사해 전통 장류 제조 방법 전승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해 위생시설을 갖추면서 전통 방식으로 매주를 숙성하고 장을 담그는 과정을 고집해 전통의 맛을 살리는 한편, 관광, 숙박, 체험프로그램도 구축해 증장을 대중화하고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신세계백화점, 국제농업박람회, 식품박람회장 등에 명인관을 설치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장에서도 식품명인관을 운영, 전남 명인 제품 시음·시식행사를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 부회장 선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5년 정기회 2차 회의가 최근 대전시 리베라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 15명과 시·도의회(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박래학 서울시장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대 후반기 회장에,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해남 1·사진)이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명 의장은 “그동안 협의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입법보좌인력 도입’과 관련 대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장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배구계 대부’ 고광삼 市배구협회장 별세

고광삼 광주시배구협회장이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장흥 태생인 고(故) 회장은 언론인으로 출발해 광주 전남 배구발전에 반평생을 바쳤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매일 기자로 필명을 떨치던 고인은 동아일보 광주전남지사장을 끝으로 언론계를 떠난 후, 송원학원 배구단장을 맡으면서 송원여상 배구팀을 전국대회 3관왕 팀으로 이끌었다. 이후 광주배구협회 상임부회장 10년, 국가대표 배구단장 5회를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배구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배구인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해 온 고 회장은 광주에 수차례 월드컵 드리고 국제남자 배구대회를 유치한데 이어 올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개최에도 기여했다.

고인의 유해는 30일 오전 담양군 월산면 천주교 묘지에 안장된다. 발인은 오전 8시 광주 천지장례식장(062-527-100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금연캠프’ 참가자들

“나는 담배가 백해무익한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건강을 위해 금연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금연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변에서 흡연자를 보면 금연하도록 권장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선언합니다.”

혈관이 막혀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버거씨병(말초혈관 부전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담배를 끊지 못한 백모(56)씨가 화순전남대병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통해 금연을 시작했다.

한때 차량정비회사에 근무했었다는 그는 고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40년 동안 하루 한갑반 이상 담배를 피워온 ‘골초’였다.

그는 지난 16~20일까지 4박5일간 10명(여성 1명 포함)의 참가자들과 함께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가 남긴 금연선언문은 다른 참가자들보다도 더 간절하고 비장했다. 버거씨병 치료를 위해 10년간 약을 복용하면서 수차례 금연을 시도했음에도, 흡연욕구를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연캠프 첫째 날, 백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신체 계측과 입원 전 검사를 거쳐 각각 2인용 입원실을 배정받았다. 사실상 자발적인 감금이었다. 그는 “금연을 위해 고통을 달게 받아들여겠다”며 이를 악물었다. 직장과 신체의 일부까지 잃어야하는 고통에 비하면 ‘약과’였다.

40년간 하루에 한갑반 ‘골초’

요가명상으로 흡연욕구 억제

24주간 센터 사후관리 받아

금연캠프는 전문의료인이 진행하는 집중 심리상담과 검진, 건강상태평가, 약물 치료,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자선량 흉부 CT촬영과 혈액검사, 소변검사, 동맥경화 등 건강을 검사하는 과정이었다. 검진과정에서 질환이 발견된 2명은 캠프가 끝난 뒤에도 병원의 배려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됐다.

캠프 참가자들은 전문의료진의 강의에 푹 빠져들었다. 김연표 교수(가정의학과)의 ‘금연에도 약이 있나요’와 ‘담배 너 누구냐’, 오인재 교수(호흡기내과)의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김선영 교수(정신건강의학과)의 ‘담배 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실천 금연법 위주의 강의여서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강의가 끝난 뒤 질문과 상담요청이 빗발칠 정도였다. 장수진 영양사의 ‘금연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식습관’ 강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현실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참가자 개인별 질환과 건강상태를 감안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 게 공감을 이끌어냈다. 강



화순전남대병원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 참가자들이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의 후에는 본인들이 직접 금연에 도움을 주는 간식 등을 만드는 체험도 곁들였다.

조별 단체상담과 개별상담도 이뤄졌다. 백씨 등은 심리상담사에게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누군가에게 핑계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금연 실패요인과 스트레스 등 상담과 요가명상을 통해 흡연욕구를 억제하고 금단증상에 대한 대처방안도 배웠다.

금연캠프를 마친 백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캠프 기간 동안 원에치료요법 중 하나로 금연 의지를 북돋우는 ‘결심나무’ 화분도 만들었다. 꼭 금연에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백씨 등 이번 캠프 참가자들은 앞으로 24주간 정기적으로 전화상담과 검진 등 금연센터

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권순석 전남금연지원센터장은 “홀로 금연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금연치료를 받으며 단계로 금연을 시도하면 성공률이 월등히 높아진다. 캠프 참가자들의 건강과 금연 성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금연지원센터에서는 매달 ‘입원형 금연캠프’를 운영할 예정으로, 제4차(10월 14일~18일), 제5차(11월 18일~22일), 제6차(12월 16일~20일) 등이다. 캠프 참가자는 매회 12명으로 제한돼 있으나, 과거 암이나 심뇌혈관질환, 말초동맥질환 등 흡연관련 질환을 앓았던 장기흡연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캠프에 입소할 수 있다. 참가신청·문의전화는 061-372-9030.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 부총장에 이용복

교무처장에 이두휴

기획조정처장 안영진

이용복(56·약학대 교수·사진) 전남대 대학원장이 최근 대학 부총장(광주캠퍼스)으로 임명됐다.

전남대(총장 지방문)는 최근 신입 부총장에 이 대학원장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총장은 대학원장을 겸임한다.

이 신입 부총장은 서울대 약대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전남대에 부임, 약학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미약학자연합회(KAPSA) 회장을 맡고 있다.

전남대는 또 이두휴(53·특수교육학부 교수) 교무부처장을 교무처장으로, 안영진(52·사회대학 지리학과) 교수를 기획조정처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정은숙(정철화원 대표)씨 아들 김진수(광주일보 사진부 기자)군 박순배(고려 구내식당 대표)·이옥희씨 딸 지유양=10월3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종 드 보네르(구 꿈의궁전) 1층 보네르홀.

▲김복수(전 광주일보 총무국장)·남혜련씨 아들 현영(신영하이테크)군 조정준·정안순씨 딸 성인양=10월3일(토) 낮 12시 광주시 남구 백운동 호텔프라도 2층 다아아몬드홀.

▲서상호·최성자씨 아들 진열(순천경찰서)군 손수봉(광주대권도장협회 사무국장)·김복금씨 딸 란(광산구청)양=10월3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종 드보네르 5층 그랜드볼룸홀.

▲안진자씨 아들 양승홍(광남일보 사회부 기자)군 정한웅·양유순씨 딸 문영(광남일보 지역사회부 차장)양=10월9일(금)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선 1층 아보레홀.

중친회

▲진주강씨 통정공 종회(회장 강대수) 임원회의=10월7일(수) 낮 12시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회관 3층 회의실 062-228-336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7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발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모집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치매예방지킴이 재능프로젝트’ 수강생 모집=중이 접기, 풍선, 스트레칭 등 교육.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수·목요일에 운영. 누구나 환영 062-608-89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원=페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뷰엔터 실사 동호회원=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광주여성하모닉스합창단(지휘 이준) 회원=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사립소년소녀합창

단실 016-604-1918(회장), 010-4416-9883(총무).

▲농성문화의 집 오전요가 수강생=군형있는 몸매와 정신을 맑게 깨우는 요가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매주 화·금, 오전 9시 30분~10시30분) 062-362-2072.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부음

▲장정자씨 별세 박영란·영미·광희·춘하씨 모친상=발인 30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양민성씨 별세 진호·효정·희정·혜경·유진·혜선씨 부친상=발인 10월1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3.

謹

삼가 故人の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이종숙 님 (여/85세) 子/子婦：문 강/양금열 夫君：문명식 女/婿：문혜란/조영재, 양희, 정희/손원식, 정자/조용선 •발 인：9월 30일 •장 지：화순 도곡 선영 •연락처：227-4381	301호 故한용희 님 (남/78세) 子/子婦：한기성/김은혜, 기춘 女/婿：한연아/김광호, 정아 •발 인：10월 1일 •장 지：담양 천주교묘역 •연락처：227-4382
101호 故김영숙 님 (여/73세) 子/子婦：전세강/장숙영, 세영 女/婿：전정숙/김일영 •발 인：10월 2일 •장 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5	102호 故정창수 님 (남/61세) 子/子婦：정영수/김숙영, 영영 女/婿：정혜순 未亡人：김미영 •발 인：10월 2일 •장 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6

孝

마음까지 편안한
호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